



유영봉(수필부문)
바람의 나그네 1편

바람의 나그네

유영봉

꿈같았다. 참말 꿈같았다. 살다보면 꿈처럼 여겨지는 일을 누구나
혹간 겪기 마련인데, 이번 산행은 내게 정녕 꿈같았다. 그러나 현실이
있음이 분명한 건, 내 왼쪽 귀에 아직도 동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바
람. 내 귀에 지금까지 울리는 것은 내내 따라다니던 그 예티 같던 바람
이다. 진저리치게 뼈 속까지 어름조각으로 할퀴어대던 바람이다.

새벽 3시가 넘어 화방재에 내리자 바람이 매섭다. 따뜻한 차안에서
나른하게 풀렸던 몸이 바짝 긴장한다. 이렇게 차가운 바람을 뚫고 피
재까지 건너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선다.

주변을 둘러보니 깊은 산중에 내린 눈이 녹지 않고 쌓였다. 한밤인
데도 백야처럼 사방이 하얗다. 길가의 평평한 눈밭에 발을 디더보니
거의 복사뼈까지 잠긴다. 적어도 15cm는 되는가 싶다. 나목들은 새파
랴게 날을 세운 겨울바람에 벗은 몸을 드러낸 채, 길고 긴 인고의 시간
을 보내는 중이었다. 생명의 푸른빛은 오간데 없고, 냉혹한 백색의 세
상에 투박하고 거친 흑갈색 나무둥치만 바늘처럼 꽂혀있다.

“그 많던 풀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새들은? 잠자리들은? 나비들
은? 풍뎅이와 벌들은? 토끼와 사슴은?”

내 물음표의 궁금중은 눈 위에 부서지고, 그 자리엔 뽕드득대는 발
자국이 남는다. 별빛 한 점 구경할 수없는 잿빛의 숲에 하얀 발자국소
리만이 바람을 타고 흐른다. 그래도 새벽은 머지않았다. 일행은 조심
조심 함백산 자락을 탔다. 날리는 눈가루로 인해 얼굴이 따끔거렸다.
이따금 바람에 휘청거리려 눈을 뜨기가 힘들 때는 히말라야의 K2봉은

어떨까 상상을 하며 곳곳에 설치된 로프에 몸을 의지했다.

눈바람을 몰고 1573m의 함백산에 간신히 올랐다. 정상은 바람의 독차지였다. 함부로 이곳을 범접한 우리들은 칼바람에 시달리다가 부랴부랴 퇴각하고 말았다. 서있기조차 힘든 강풍 때문만이 아니었다. 뱃골 깊숙이 스며드는 겨울왕국의 추위까지 엄습한 탓이었다. 바람은 옷깃을 파고들었으며, 추위는 온몸을 해집었다. 눈가루는 그냥 퍼붓다시피 했다. 우리는 함백산 정상에서 사납고도 냉혹한 겨울의 민낯을 결국 보고 말았으며, 단칼에 그 죄 값을 톡톡히 치렀던 것이다.

우리는 쫓겨났다. 아니, 스스로 물러났다. 그리고는 철조망 아래의 공터 주변에서 재차 장비를 챙겼다. 나는 광풍이 몰아닥치는 함백산의 모습을 올려다보았다. 정상은 어둠에 잠겨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저쪽 공터에서는 세찬 눈보라가 회오리를 일으키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그 바람에 하얗게 수직으로 날리는 눈가루회오리는 일견 장관이었다.

나는 잠시 바람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가 뽀얗게 흩날리는 눈가루 속에서 한 떼의 늑대사냥꾼들을 보았다. 하얀 군무 속에서 모닥불은 붉게 타올랐고, 그 주위에 둘러앉은 일군의 사냥꾼들이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함께 어울려 긴 나뭇가지에 켤 고깃덩이를 굽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차를 끓이는 모양이었는데, 오로라 같은 불길의 흔들림에 따라 그들의 얼굴도 일렁거렸다. 그들은 얼룩덜룩한 털가죽을 걸치고 머리에는 하나같이 털 조각을 두른 모습이다. 작은 남자 아이 하나도 같은 차림이었다. 아이는 불 옆에 앉아 짧은 피리를 불었다. 피리 소리에 맞춰 어린 여자 아이는 빙빙 돌며 춤을 추었다. 젊은 사내들은 왈작한 웃음소리를 터뜨렸고, 두어 명의 여인들은 말없이 술시중을 들었다. 지글대는 고기냄새와 함께 독한 술 냄새가 내 코끝에 훅 끼쳤다. 불길에 반사된 그들의 눈은 야성으로 번들거렸으나, 무어라 형언키 어려운 배포와 기상이 넘쳐났다. 돌연 일진광풍

이 불어오고,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갔다. 그들은 타던 불꽃의 재나, 한 웅큼의 온기조차 남겨두지 않고 깨끗하게 사라졌다. 내 뇌리에 깊게 박혀있는 그들의 눈빛이 전부라면 전부였다. 늑대사냥꾼들을 잃어버린 나는 발길을 돌렸다. 그들에게 빌린 야성의 눈빛으로 어둠을 헤치며 함백산을 내려갔다. 그러나 20cm가 넘게 쌓인 눈길에서 두 번이나 미끄러지고 나서야 아이젠을 찾다.

세상이 슬슬 밝아오고 있었다. 땅바닥에 누운 눈이 먼저 누른빛을 띠고 일어선다. 동쪽을 바라보니 검은 하늘 아래쪽으로 청보라 빛이 눈을 뜬다. 다시 주황빛으로 바뀌더니 어느 새 붉은 빛이 감돈다. 겨울이 무슨 짓을 하는가 보려고 하늘이 실눈을 살짝 뜬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웬일?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나는 주체할 수 없이 눈까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졸렸다. 하얀 눈발이 이부자리처럼 편안해보이고, 눈까풀은 벨벳커튼처럼 망막을 두껍게 덮어 내린다. 무거웠다. 아무 곳이나 몸을 내던져도 그냥 잠이 들 것 같다. 물려오는 잠을 내쫓기 위해 나는 일부러 고개를 힘껏 내저으며 혼잣말 아닌 혼잣말을 내뱉었다.

“어휴, 졸려라! 왜 이렇게 졸리지?”

하늘은 점점 밝아왔지만, 내 졸음神은 좀처럼 스러지지 않았다. 자꾸만 앞쪽이 부연해지더니 아뿔싸~ 안경마저 성애가 끼어 시력까지 떨어지고 있었다. 두 눈썹 사이의 인당혈과 귀 부근의 솔곡혈을 번갈아 누르면서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안경을 내려 입김으로 호호 불며 아침을 닦았다. 먼동이 트는 동녘하늘이 꾸물꾸물 다가온다. 구름에 가린 탓인지 해님은 가깝지도 멀지도 않다. 하얗게 표백된 세상에서 시간은 바람과 함께 잠깐 멈춘 듯싶었다. 시간이 정지된 공간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은 우리들뿐이었다. 졸음과 함께 정적에 파묻혔던 길이 차곡차곡 풀어져 내렸다.

순백의 화원을 따라 은대봉에서 다시 금대봉으로 향했다. 금대봉은 '양강발원봉'으로도 불리는데, 바로 이 산자락에서 한강과 낙동강이 발원하기 때문이다. 북쪽 사면의 '검룡소'에서는 한강이, 남쪽 사면의 '황지'에서는 낙동강이 시작된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지 중의 오지라고 할 수 있는 태백의 금대봉은 실로 자랑할 만한 곳이다. 그래서일까? 발원지 탐방을 위한 안내판이 곳곳에서 친절하다.

비단봉에서 내려와 임도를 벗어나면, 앞쪽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바람의 언덕'이 보이기 시작한다. 풍력발전기가 늘어선 바람의 언덕을 향해 올라간다. 2008년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가볼만한 10곳'에 낀 이국적인 아름다운 풍광이다. 바람의 언덕은 곧게 뻗은 오르막길이다. 두어 걸음을 내딛었다 싶으면 바람이 전신을 후려쳤다. 전신을 휘감는 차가운 바람에 온 몸이 오그라지고 내 귀는 이곳에서 동상이란 선물을 받았다. 그렇게 10여 분 가량 바람을 뚫고 걷다가 몇 년 전에 상영된 마틴 캠펠 감독의 영화 ??버티컬 리미트??(2001)가 문득 떠올랐다. 눈 쌓인 산에서 아버지를 잃은 남매가 산악인들과 함께 히말라야의 K2봉으로 오르는 영화였다. 눈과 바람에 굴하지 않고 사투를 벌이며 곳곳하게 걸어가는 그들의 영상이 불현듯 떠오른 것이다. 뒤이어 네팔의 추억이 떠올랐다. 마차푸차레와 페와 호수가 눈에 선했다. 백두대간종주산행을 끝내면 네팔의 히말라얀 서큐레이션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의욕이 순간 샘솟았다. 그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외쳤다.

“길여, 길게길게 뻗으시라! 바람의 나그네들이 언제나 걸어가리니.”